

CGNTV

M A G A Z I N E | Autumn 2016_Vol.14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T.02)796-9800 F.02)749-6638 www.cgntv.net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CGNTV

정기후원 특집

“CGNTV가 좋은 건, 말씀이 좋아요.
 새벽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정말 소중하지요.
 이런 마음 저 뿐은 아닐 거예요.
 어느 곳 누군가도 저처럼
 이 시간이 무엇보다 귀한 사람 많을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재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주님을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해주는 것이 참 좋아요.
 CGNTV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 배우 김혜자 권사 인터뷰 중에서

CONTENTS

Autumn 2016_Vol.14

포토에세이 사진작가 신미식

I. 특집 - CGNTV의 아주 특별한 선물

- 04 후원자 스토리
배우 김혜자 권사
은혜샘물교회 박은조 목사
(주)빅스바이트 대표 이밖음 집사
화가 박희숙 / 쌍둥이 자매 김자연, 김자원
- 14 다큐멘터리 <아주 특별한 선물>
선교사들을 위한 작은 위로
<아주 특별한 선물> 뒷 이야기
- 인터뷰 : 박관일, 최미숙 선교사 / 모델 박돌선
- 18 CGNTV 미디어 아카데미
2박 3일의 뜨거운 만남

II. 프로그램

- 20 프리뷰 특집 다큐멘터리 <서서평>
조선에 바친 극진한 사랑
- 22 CGN 포커스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 QT>
K웹페스트 '베스트 브랜드 시리즈' 상 수상
- 24 Inside Out
<인포리를 부탁해>, <이태원 준섭이>
- 26 CGN 초이스
신작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 패밀리>

III. CGN 소식

- 28 포토다이어리 CGNTV 직원 아웃리치
- 30 선교지의 아침 칠레 이정관, 유미 선교사
먼 나라 좋은 친구
- 32 CGN 뉴스 국내, 해외
- 36 요일별 편성표
- 38 후원안내
- 39 에필로그 이용경 장로 (CGNTV 운영위원)
CGNTV 사명의 진화



COVER STORY

CGNTV를 통해 복음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는 후원자, 배우 김혜자 권사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6년 9월 30일 (통권 제 14호)
 발행처 CGNTV (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유재건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기획 CGNTV 커뮤니케이션팀
 진행·편집 현아영, 어대준, 김란, 조인애
 글 조인애
 사진 어대준, 여준원
 디자인·인쇄 페이지원 (02-757-3111)

자연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들.

너무나 아름다워 눈물 나던 시간들.

너무나 행복해서 스스로를 격려하던 시간들.

몽골 차튼족을 만나러 가는 여정은 인내가 필요했다.

자연과 하나 되어, 아니 스스로 자연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만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또 다른 가족 순록을 보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함에 이내 힘들었던 여정을 잊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산중에

움막 같은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소유한 것들 중에 필요치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다.

오후 언덕 위로 뿔어져 나오는 구름과 사람.

그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온 이유들을 알 수 있었다.

- 몽골



StoRy 1.

나와 같은 이들을 위해

배우
김혜자 권사

70대 중반의 나이이지만 여전히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주는, 열정적인 배우 김혜자 권사. 몇 년 전부터 그녀가 CGNTV에 후원자의 손길을 보내왔다. 이미 NGO 사역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 그녀가 또 다른 사역에 이렇듯 후원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언어에는 '방송 선교', '세계 선교' 같은 원대한 이상은 없다. 그저 그녀가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는 듯이 내뱉는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주님이예요"라는 말에 그 답이 있었다.

**“이런 마음이 나 뿐은 아니겠지.
...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거야.”**

김혜자 권사는 영화 <마더>로 지난 2010년 미국 LA영화비평가협회로부터 아시아 배우 최초로 '최고 여배우상'을 받았다. 이 상은 골든글러브 등과 함께 아카데미상의 향방을 점칠 수 있는, 미국 내 권위 있는 영화상 중 하나다. 당시 '최고 남자배우상'은 영국 배우 콜린 퍼스가 수상했다. 그녀에겐 배우로서 어느 때보다 영예로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시 이 수상보다 더 잊지 못할 기억이 있었다.

“배우로서 제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수상 이후 그녀는 미국 얼바인에 사는 딸의 집에 좀 더 머물렀다. 새벽예배에 같이 가자는 딸의 제안에 오랜만에 새벽을 깨웠다.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예배 중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목청 높이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왔고 방언도 터졌다. 그녀는 얼마 후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자신이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 이후로 그녀는 더욱 '주님 바라기'가 됐고 새벽예배 시간에 흠뻑 빠졌다. 교회까지 가기가 거리상 여의치 않아 그녀는 새벽이면 CGNTV를 틀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다. 하지만 한 일 년 반 즈음 지나 마음이 다소 시들해지는 것 같아, 하나님께 “제게 주신 시간이 왜 이리 짧은지요”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나오던 TV가 갑자기 나오질 않았다. 새벽예배를 볼 수 없게 되

자 그녀는 생각 이상으로 당혹스러웠고, 어떻게 하든지 TV를 보고 싶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예배의 끝을 보게 되면서 그녀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분명히 알게 됐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런 마음이 나 뿐은 아니겠지. 지금 어느 곳 누군가도 나처럼 이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거야.” 그녀는 이 일을 계기로 CGNTV를 후원하게 됐다.

**“제가 CGNTV가 좋은 건요.
... 모든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요.”**

그녀는 작품 활동 이외에는 별다른 바깥출입이 많지 않다. 많은 생각과 연구로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교제한다. 어느 때는 이런 점이 성도와 교제하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맘에 숙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주님을 묵상하는 일상 중에 도리어 자신도 모르는 새 꾸준히 세상과 소통 중이다. CGNTV도 그 통로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CGNTV로 새벽예배를 드리던 중, 노숙자 사역에 헌신하는 산마루교회(담임 이주연 목사)를 보게 됐다.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감동받은 그녀는 방송 후 산마루의 노숙자 사역에 후원금을 보내 마음을 표했다.

“제가 CGNTV가 좋은 건요. 말씀이 좋아요. 목사님들 설교가 모두 좋아요.” 어깨에 힘을 뺄듯 하지만 어느새 대중들의 가슴을 훑 치고 가는 그녀의 연기처럼, CGNTV에 대한 그녀의 말들은 오랫동안 묵혀둔 진심이 엿보였다.

“이번 추석 연휴에 마리아 행전을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몸이 불편한 아이 열 명을 자식 삼은 한 사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지요. 추석 연휴 여기저기서 오락프로그램도 많이 하지만 누군가는 저처럼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생각했겠지요”라며 CGNTV의 역할을 짚었다. 그녀는 CGNTV를 통해 가난한 영혼들 곁에 있는 수많은 예수바보들을 지켜보며 감동을 받아왔다.



**“CGNTV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곳이라는 것,
...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그녀는 지금도 더 나은 연기를 위해 고민한다. 이는 그녀의 연기에 부지중에 그녀의 마음이 실리기 때문이다. 최근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를 찍는 동안, 그녀는 ‘치매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 머릿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수없이 생각했다. 물론 과학적인 답이 있지만, 그녀는 인물을 대신하기 위해 다양한 생각들을 했다. 또 그녀는 작품을 고를 때마다 그 작품이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한다. 최근 작품에선 젊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 그리고 늙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볼길 바랐다. 그녀는 아무리 힘든 역할이어도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면 작품을 선택한다. 물론 잘 써진, 기초공사가 튼튼한 작품인 것이 우선이다.

“어찌 됐든 작품은 재밌어야 해요.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해야지 너무 심각하기만 하면 아무도 안 듣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본이 좋아야 해요. 그리고 내가 잘하면 좋을 것 같다 싶으면 작품을 해요.”

잘 준비해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작품에서든 일상에서든 매사 그녀가 추구하는 소통방법인 듯하다. 유머와 진중함을 오가는 그녀의 인터뷰도 그녀의 드라마를 보는 듯 흡입력이 있었다. 이 점은 CGNTV에 건네는 그녀의 진심에서도 잘 드러났다.

어린이예배 애청자라는 그녀는 “어린이에게 얘기해주는 것을 들으면 무척 재미있다”며 “CGNTV가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음이 있어도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CGNTV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곳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며 “이 사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해주기를 바란다”고 권했다.

그녀는 아직 차기작 계획은 없다. “어쩌면 <디어 마이 프렌즈>가 제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다”며 “계획은 제 몫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제 달란트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더 놀라운 작품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라고 했다.

그녀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여정도 사람들의 제안에 따라 무작정 떠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지 않는 편이 모금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길을 택한다. 주님 손 잡고 오늘도 진중한 발걸음을 내딛는 김혜자 권사. 그녀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그녀는 주님을 묵상하는 일상 중에 도리어 자신도 모르는 새 꾸준히 세상과 소통 중이다. CGNTV도 그 통로 중 하나다.

StoRy 2. 한국교회가 함께 갈 길

은혜샘물교회
박은조 목사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은혜샘물교회가 2015년 9월 22일 CGNTV 후원을 위한 약정 행사를 진행했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CGNTV는 성도들에게 상세히 사역을 소개했고, 총 100여 명의 성도가 선교지와 선교사를 돕는 사역에 새롭게 후원을 약정했다.

이날 행사는 후원이 확대됐다는 사실과 함께 CGNTV의 비전을 한국 교회 성도들과 한층 가까운 자리에서 나눴다는 면에서 고무적인 일이었다. 또 은혜샘물교회의 담임이자 한국교회의 영적 리더인 박은조 목사가 이 일에 적극 동참했다는 점에서도 뜻하는 바가 컸다.

박은조 목사는 “이 사역은 선교를 위해, 한국, 더 나아가 세계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며 “작으나마 우리 교회부터 첫 걸음을 뗐다”고 했다.



박은조 목사는 CGNTV의 후원자이자 십년지기다. 그의 말씀 강해가 개국 이후 10여 년간 CGNTV 영성 콘텐츠의 상징처럼 방송돼왔다. 이는 박 목사가 선교지에서 더욱 환영받는 이유 중 하나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저는 처음 본 분인데 많은 분이 저를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CGNTV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다고 하시죠. 그런 피드백을 선교지에 갈 때마다 일 년에 서너 차례 받습니다. CGNTV를 통해 많은 분과 만나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박 목사는 선교지 내 CGNTV의 역할을 누구보다 체감해 온 인물이다. 하지만 박 목사가 CGNTV 후원을 결심하게 된 것은 최근 CGNTV 관계자들과 직접적인 교제를 가지면서부터였다. 박 목사는 CGNTV 사역이 귀하지만, 이제껏 온누리교회 자체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을 것



이라고 여겼다. 특히 그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아침, CGNTV 설립자인 하용조 목사 와 목회자 모임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났었지만 운영의 어려움 등에 관해선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온전히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점도 불과 몇 년 전 알게 됐다.

“뒤늦게 후원을 시작하게 돼 미안한 마음입니다. 최근 CGNTV 리더십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역의 재정문제를 보게 됐습니다. CGNTV는 한 교회에서 비롯됐지만 이제 한국교회가 함께 도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 목사는 CGNTV가 온전히 후원으로 운영되는 점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다.

“방송이 상업화되면 절대로 순수한 복음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콘텐츠가 변질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CGNTV가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 후원에만 의지하며 씨름한다는 것을 듣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는 2만 8천여 명이고, 올해 초 CGNTV가 선교지에 설치한 안테나 수는 1만 대를 넘었다. 선교사 두세 가구당 1명이 CGNTV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박 목사는 아직 그 수치가 아쉽다.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CGNTV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그분들은 주변에 교회가 있어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부족합니다. CGNTV가 모든 선교사 가정에 안테나가 달리는 것을 목표로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후원하며 돕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영적 리더인 박은조 목사는 다방면에서 CGNTV에 거는 기대가 크다. 북한 및 이슬람 국가 등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땅에 CGNTV가 복음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주목하는 복음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주기를 부탁한다.

“CGNTV가 이런 미디어의 사명을 잘 감당해준다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다행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순수한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CGNTV는 한 교회에서 비롯됐지만 이제 한국교회가 함께 도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StoRy 3.

차세대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이밝음 집사



CGNTV는 올해 처음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 QT>를 제작했다. 차세대, 젊은 층을 공략한 과감한 도전이었다. 지난 6월 첫선을 보였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며 호응을 얻었다. 제2회 K웹페스트에서 국내외 비기독교 웹시리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베스트 브랜드 시리즈' 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첫 도전이 그렇듯 이번 웹드라마의 긍정적 결실은 많은 이들의 지원, 숨은 노고와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밝음 후원자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낯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선뜻 웹드라마의 제작을 후원하고 격려했다. 이는 물질적 도움은 물론 첫 도전을 가능케 한 힘 있는 응원이었다.

이밝음 후원자는 영어전문교육기업 (주)빅스바이트를 운영하는 영어교육 전문가다. '보물'이란 뜻인 사명 '빅스바이트'가 말해주듯, 그녀는 차세대야말로 미래를 열어갈 보물이라고 믿는 믿음의 교육가다. 그녀가 웹드라마를 후원한 이유 중 하나도 웹드라마가 그들을 만나는데 쓰이기 때문이다.

"회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차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저희 기업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도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회사 직원들도 흔쾌히 동의한 바다. 그녀는 회사 직원, 선생님들 9명과 정기적인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이는 현재 그녀에게 가장 행복하고 든든한 자리다. 함께 하는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나의 기업'이라고 믿는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같은 마음인 그녀는 2년 전에는 MK(Missionary Kids)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만나 수익을 고려하기에

앞서, MK LCA라는 프로그램을 열고 그들을 가르쳤다.

최근엔 지인의 권유로 CGNTV의 운영위원이 됐다. 그동안 CGNTV를 후원하고 동역하고 싶었던 마음이 때마침 작용한 것이다. 그녀의 평소 생활 가까이에 늘 CGNTV가 있었다.

"저희 집 TV가 가장 제 몫을 할 때는 CGNTV를 볼 때입니다. CGNTV는 세계 역전 드라마를 함께 쓰는 도구입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 멘토들을 만나고 어떤 프로그램을 보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론 갈 길을 몰라서 헤맬 때 섬광처럼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메시지도 그랬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첫발을 들인 이후 그녀는 좀 더 이 사역 전방에 선 자의 마음이 됐다. "CGNTV가 온전히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선교의 역사를 쓰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하나요. 다만 레위지파가 그랬듯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를 자신이 운영해 나간다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CGNTV 콘텐츠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하모니앱'을 사용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성경구절을 보낸다. 이런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 좀 더 많은 이들에게 CGNTV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후원이 늘길 바라고 있다.

"CGNTV는 없어서는 안 될 방송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한 페이지 쓰고 있고요. 이 일에 후원자가 됐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동참하는 것이 작은 부분이라도 귀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느새 코끝이 찡해진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더욱 그랬다. 때론 사업의 길이 막히고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늘 또 새 길을 여셨다. 그녀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품고 나간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롬12:9~11)"

말씀에 따라 부지런하고 순전하게 걸어가는 길. 마치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그녀의 이름이 이정표인 듯, 그녀의 기업, 그녀가 품고 있는 차세대 그리고 그녀가 섬기는 CGNTV의 미래가 밝은 길로 향한 듯싶다.

CGNTV가 온전히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선교의 역사를 쓰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StoRy 4. 생명수 같은 사랑으로

박희숙 권사



수목화 작가 박희숙 권사는 그림을 통한 수익을 CGNTV에 후원하고자 전국투어 전시회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이 잘 때 후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CGNTV의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30년 만에 다시 붓을 들었다. 이미 다년간 CGNTV 중보기도팀을 이끌어 왔던 그녀가 회사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손수 그 부분을 채워주고 싶었던 것이다. 더 주고 싶은 마음, 더 채워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뜻을 갖고 시작한 박 권사의 개인전은 현재 좋은 반응을 얻으며 지난 5월과 7월 각각 파주 헤이리와 서산에서 진행됐다. 오는 10월 부산 해운대, 내년 2월 부산, 3월 초 강릉 오죽헌, 3월 말 인사동에서도 이어진다. 작품의 소재는 성경이고, 테마는 ‘하늘의 평안, 안식, 사랑’이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 박 권사의 작품 테마를 보면, 30년 만에 다시 붓을 들 만큼 그녀가 CGNTV를 사랑하는 이유도 짐작이 된다. 박 권사는 어느 주일 밤 한 일본인 목회자가 “CGNTV가 생명수 같다”며 울먹이며 말씀을 잇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무엇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

“CGNTV 150명 직원들이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데 그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회사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후원자들에게 재정적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녀가 이끄는 중보기도팀의 기도도 모두 그 마음에서 비롯됐다. 그녀가 속한 8명의 중보기도팀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CGNTV는 제게 생명수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습니다.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오지에서 지쳐있던 선교사들이 방송을 보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회사 같아요.”

그녀는 CGN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한복 짓는 솜씨가 있어 특집 다큐멘터리 <女선교사, 조선을 비추다>에서 로제타홀 선교사를 흠모하는 한복 짓는 사람이 됐다. 그녀는 1988년 온누리교회를 처음 출석해 하용조 목사를 중심으로 CGNTV가 성장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그녀는 하 목사의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나라의 한 사람, 한 교회의 한 사람이 무척 중요하구나”라고 느끼며 “나도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미 그녀는 CGNTV에 누구보다 중요한 한 사람이 됐다.

2014년 11월 23일,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쌍둥이 자매가 CGNTV를 후원하겠다고 약정했다. 엄마의 제안에 두 자매가 흔쾌히 수락해 성사된 일이었다. 자매는 자신들의 용돈을 쪼개 후원을 하기로 했다. 다만 매달 받는 용돈 만 원은 주일 헌금과 준비물을 사야 하니 어릴 때부터 명절 때마다 받아 저축해두었던 용돈을 후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자매는 웬지 그 돈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통장에 후원금으로 나갔다고 찍힌 것을 보는 것이 좋아요.” 어느새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자매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 기쁘고 뿌듯했다. 또 “마음이 어때?”라는 물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잖아요”라고 말하는 어린이들이다.

엄마 조은주 씨는 서울동안교회(담임목사 김형준)에서 열린 CGNTV 후원 행사에서 CGNTV를 처음 접했다. 그녀는 결혼 8년 만에 어렵게 얻은 소중한 딸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주기를 바랐다. 함께 말씀을 공부했고, 나눔이 필요한 곳과 함께 하도록 가르쳤다. 또 주변의 많은 아이를 지켜 보면서 아이들이 선교의 현장,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것을 눈여겨 보았다.

CGNTV는 후원행사 당일 처음 알게 된 단체였지만, 사역의 면면을 보면 예비 된 만남 같았다.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선교의 시작 같았다.

“부모의 말에 기꺼이 순종하고, 자신들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수락한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더 크게 쓰시리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곧 중학생이 되는 자연, 자원 쌍둥이 자매는 이제 선교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고 나눠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알고, 그 일을 위해 CGNTV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또 “다른 친구들도 어려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후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엄마 조은주 씨는 이제 CGNTV를 자주 찾는다. 많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또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터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말한다. “CGNTV는 항상 ‘전체관람가’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보고 나누고 기도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큰 비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선교지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도 낙심되고 어려울 때를 만나실 때면, 이런 어린아이들도 아기 때부터 모은 돈으로 사역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toRy 5.

어려도 할 수 있는 선교

쌍둥이 자매 김자연, 김지원

선교사들을 위한 작은 위로

다큐멘터리 <아주 특별한 선물>

CGNTV 나눔 프로젝트, 특집 다큐멘터리 <아주 특별한 선물>이 지난 9월 4일 공개됐다. 베일에 가려졌던 '아주 특별한 선물'의 정체가 드러난 것. 어떤 선물이 담겨 있었을까. 포장이 열린 다큐는 뜻밖의 선물을 받은 탄자니아 두 선교사 가정의 행복 가득한 순간을 담고 있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도에 사역을 포기하는 선교사의 수가 전체 선교사의 1.5%에 달한다. 재정, 현지인들과의 마찰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지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다고 한다. 사랑하는 가족이 받는 시련은 그들에게 가장 큰 가슴 속 멍이기도 하다.

이에 CGNTV는 “선교사가 행복해야 선교지가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이번 프로젝트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결국 자신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인 그들. 정연숙 선교사는 고국에 홀로 떨어뜨려 놓은 입대 한 아들을 만났고, 박관일, 최미숙 선교사는 결혼 20주년 기념 리마인드 웨딩을 올렸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 준비한 먼 나라 한 영혼을 위한 깜짝 선물. 선물을 준비하는 자의 기대와 설렘, 받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다큐를 통해 함께 누리보시길.



첫 번째 선물 _ 탄자니아 정연숙 선교사 군에 간 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휴가”

MK(Missionary Kids,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 낯선 선교지에서 마음고생이 많았던 아들이 성인이 돼 해병대에 입대했다. 다른 부모들은 휴가 때면 맛난 것도 사 먹이고 면회도 자주 가서 아들의 얼굴을 보지만 먼 나라에 있는 선교사 부모는 시차 때문에 통화 한 번 제대로 하기 어렵다.

혼자 머리 깎고 입대했던 가슴 쓰린 아들에게 손수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MK 인터뷰인 줄 알고 CGNTV와 만난 아들은 생일이었던 휴가날, 평소 바람이었던 걸거리 버스킹을 하게 되는 등 뜻밖에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아주 특별한 생일상도 선물 받는다.



두 번째 선물 _ 탄자니아 박관일, 최미숙 선교사 20년 만에 받은 프로포즈,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결혼식”

소년원 출신의 고아였던 박관일 씨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선교사가 되기까지 그의 곁에는 항상 그를 믿고 동행해준 사랑하는 아내 최미숙 선교사가 있었다. 프로포즈도 없이 20년을 함께 해 온 선교사의 길. 병고도 이기며 하루하루 탄자니아의 아이들을 품어 온 그녀를 위해 박 선교사는 20년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 꽃길을 걸어오는 아내에게 선사하는 작은 반지와 노래. “힘들고 지칠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 줄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프로포즈에 행복한 최 선교사.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는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 해변에서는 다음 날 있을, 그녀만 모르는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었다.



※ 다큐멘터리 <아주 특별한 선물>은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 뒷 이야기

또 다른 선물 _ 박관일, 최미숙 선교사

에메랄드빛 바다를 뒤로 그림 같은 결혼식을 올렸던 주인공들. <아주 특별한 선물>의 박관일, 최미숙 선교사 부부는 매마침 방송 주간엔 한국을 방문했다. CGNTV는 고향집 같은 심정으로 고국을 방문한 두 선교사를 초대했고, 직원예배를 통해 못다 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을 찾아갔던 <아주 특별한 선물>은 사역의 위기를 겪고 있던 선교사를 위로한, 로맨틱한 추억 그 이상의 사건이었다. CGNTV가 그들에게 처음 연락했을 무렵,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마저 들었던 때였다. 한 여성의 장례를 기독교 방식으로 치러줬다는 이유로 무슬림에게 신고를 당했고, 잘 보살펴주었던 아이가 에이즈로 눈앞에서 죽어갔다. 또 학비를 주고 기술학교에 보내주었던 학생이 월급을 안 준다며 그들을 노동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말라리아까지 겹쳐진 최미숙 선교사는 연이은 시련 속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심신이 쇠해갔다.

“더 힘든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조금 힘들다고 영영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케냐에서 공부 중인 아이들도 위로를 받는 저희를 보며 더불어 회복과 은혜를 받았습시다. 그동안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다해주셔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최선교사는 자신이 받은 선물은 물론, 평소 비용 때문에 자주 찾아가지도 못해 안쓰럽던 자녀들이 이번 일을 통해 위로를 받아 더욱 마음이 기뻐다. 또 부부는 운영하는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늘 하나라도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오랜 바람을 이루게 됐다. “넌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야”라고 이번 일을 계기로 말해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리마인드 웨딩을 하며 돌보고 있는 고아원, 에이즈 아이들에게 좋은 밥 한 끼 먹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기뻐다. 아이들은 현지인이라는 이유로 돈도 내도 호텔에서 문전박대 당해왔다. 그녀는 “이런 자리는 아이들에게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며 “아이들에게도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다”고 했다.

멋진 노래로 프로포즈했던 남편 박관일 선교사는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았다”고 했다. 매사 아내와 함께 하는 그가 아내 몰래 일을 꾸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과 축가를 준비하고, 손수 웨딩케이크를 만들고, 깜짝 선물을 준비한 지난 몇 개월, 그는 또 다른 자신만의 추억을 갖게 됐다.

최 선교사는 요즘 주변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늘 걱정만 했던 부모님과 형제들도 “잘됐다”, “부럽다”라는 말을 한다. 또 탄자니아 지체들과 함께 지난 사진을 보며 소소한 행복도 누리다. 그들은 촬영을 마친 후, <아주 특별한 선물> 제작진에게 지난 과정을 담은 사진을 받았다. 사진은 부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군

청 직원들에게도 도착했다. 사진을 본 한 현지인 아이는 나도 사진에 넣어달라며 투정부리기도 한다. 그들의 선물은 또 다른 이들에게도 추억으로 남았다.

프로포즈에서 사진까지. 그녀는 “CGNTV에서 프로그램 이름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다”며 “정말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다고 했다.

아름다운 행복 도우미 _ 모델 박돌선

<아주 특별한 선물>이 꾸민 서프라이즈 이벤트에 또 한 사람의 숨은 도우미가 있었다. 박관일, 최미숙 선교사 에피소드 편에 등장한 교수이자 한국 톱 모델인 박돌선 씨다. 긴 준비와 출연자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필요했던 이 일에 그녀는 기획 초기 단계부터 흔쾌히 뜻을 같이 해주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핵심 역할은 신부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일이었다. 늘 누군가를 통해 메이크업을 받고 선택해 준 의상을 입어왔던 그녀가 이번에는 그 반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받은 메이크업과 입어본 옷의 수만도 셀 수 없는 그녀지만, 정작 결혼식의 꽃인 신부를, 그것도 아주 특별한 주인공을 도맡아 꾸미는 일은 결코 간단한 책임이 아니었다.

동행을 결정한 이후부터 그녀는 본격적으로 웨딩플래너가 돼 직접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신부 메이크업을 연구했다.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는 순간 그리고 웨딩마치를 하는 순간 가장 예뻐 보일 수 있도록 여기 저기 자료도 찾아봤다. 그녀의 걱정은 신부 앞에 하얀 웨딩드레

스를 내놓았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단번에 눈 녹듯 사라졌다. 또 메이크업 마지막, 떨리는 손으로 신부의 속눈썹을 붙이고 닦을 때 그녀의 눈앞에 있는 신부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아주 특별한 선물>의 피날레였던 두 선교사의 리마인드 웨딩은 해변에서 진행됐다. 그림 같은 화면과 달리 당일 바다엔 파도가 높았다. 쉽지 않은 촬영이었지만, 그녀는 파도 치는 바다가 무엇보다 두 사람의 인생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두 분도 잔잔하게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듯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혜가 됐습니다. 두 분의 삶이 저에게 주는 충격은 꽤 컸습니다. 저도 굳이 탄자니아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짝이 돼 20년간 사명을 감당하며 고락을 같이 한 두 사람을 지켜보며, 20년을 바라보는 자신의 결혼도 돌아봤다. 잠시 내려놓았던 사명을 다시 세우고 남편과 세웠던 비전을 조금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톱 모델인 그녀는 어디서든 단번에 눈에 띄는 사람이지만, 이번 다큐에선 도드라지지 않았다. 늘 주인공들 뒤에서 섬기고 도왔다. 웨딩을 준비하고, 프로포즈 과정을 돕고, 두 사람의 인터뷰에 결혼식 사회까지 도맡았다. 그녀는 신부만큼 고운 사명자였고, 아름다운 행복 도우미였다.

2박 3일의 뜨거운 만남

CGNTV 미디어 아카데미

광주 월광교회 유년부 교사였던 양희봉 집사는 매년 아이들의 영상을 기록으로 담아내고 싶었지만 생각 속 그림을 실현하기 어려웠다. 또 교회 헌신자 학교의 성도들을 위해 강의 동영상도 제작해보고 싶었지만 편집, 자막 기술이 부족해 할 수 없었다. 복음이 자라나는 현장에서 그는 누구보다 미디어 선교의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쉽게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매번 되뇌며 기도했던 그는 지난 여름 ‘CGNTV 미디어 아카데미’가 자신이 출석하는 광주 월광교회에서 처음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아카데미 오픈 일을 손꼽아 기다렸고, 시작 후, 2박 3일 동안 CGNTV가 마련한 강의 를 누구보다 열심히 들었다.

그는 “CGNTV 직원들과 만났던 지난 2박 3일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고, 교회 헌신자학교 수료 후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이후로 가장 짙은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CGNTV, 미디어 아카데미 첫걸음

CGNTV는 지난 7월 다년간 기도해왔던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 ‘CGNTV 미디어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미디어선교의 중요성을 느끼며 이를 한국교회들과 나누기 위해 CGNTV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 준비한 자리다.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디어 아카데미’는 1차로 7월 5일(화)~7일(목) 충북 청주시 ‘상당교회 크리스천 하우스’에서, 2차로 7월 13일(수)~15일(금) 광주광역시 ‘월광교회’에서 개최됐다. 각각 청주지역 7개 교회 45명, 광주지역 29개 교회 77명의 목회자 및 미디어 사역을 꿈꾸는 이들이 참석했다.

CGNTV 직원들은 매일 오전 7시 큐티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첫날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시

작돼 이튿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강의가 진행됐다. 매일 네 과목 정도의 다양한 강의들이 이어졌다.

〈미디어와 선교〉, 〈좋아 보이는 우리 교회의 비밀 UX〉, 〈교회 홈페이지 만들기〉, 〈유튜브 & 페이스북 쉽게 따라잡기〉, 〈기독교 영상 트렌드〉, 〈목회자를 위한 파워스피치〉, 〈교회 방송 시스템(기술/영상/음향)〉, 〈찾아가는 아카데미(교회 시스템 컨설팅)〉, 〈속성으로 배우는 사진강의〉,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교회 영상편집〉 등이다.

참석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도 익혀보고, 스피치 노하우도 배웠다. 베가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 및 편집 방법 등도 접했다. 또 교회를 방문한 CGNTV 직원들에게 음향 등의 방송 시스템에 대해 직접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뒷이야기

“미디어 사역에 관해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영상, 음향에 대해 이전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직접 교회를 방문해 음향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역교회 살리기 운동에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자비량, 재능기부 감동받았습니다. 친절해서 더 감동이었습니다.” 등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참석자들은 강의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양희봉 집사가 출석하는 월광교회는 직접 교회 음향 시스템을 컨설팅 받은 후, 오랜 체증을 해소하기도 했다.



다. 양 집사는 “실내 온도가 음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에겐 정말 크고 비밀한 사실이었습니다. 마이크 잡는 법 등 사소한 것 하나까지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 주변 교회들에게 이런 노하우를 전해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동체, 비전

“CGNTV 직원 한 분 한 분들이 서로 협력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CGNTV 직원들이 이 프로젝트를 이벤트로서가 아닌 파트마다 성실하게 준비해 오신 모습을 보며 감사했다”며 “환상적인 공동체였다”고 말했다. 그는 “CGNTV에서 선물로 전해준 차 세트를 귀한 손님께만 대접하려고 아직 뜯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CGNTV의 한 강사는 “비전으로만 그리던 미디어 아카데미를 직원들이 하나하나 협력해 준비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강의를 들은 양 집사와 같은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저 기술과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닌 CGNTV가 받은 여러 가지 축복과 경험을 나누고 미디어 선교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고 했다.



조선에 바친 극진한 사랑

다시 태어나는 '서서평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의 숭고한 삶 조명
철저한 고증과 재연드라마를 통해 감동 재현
내년 초 극장 개봉

반을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 장, 강냉이 가루 2홉이 생을 마친 뒤 남은 전부였던, 독일인 선교사 서서평(본명 엘리자베스 쉘핑, 1880~1934). 32세에 홀로 조선에 들어와 수많은 조선인의 어머니로 생을 마감한 그녀의 사역 일대기가 CGNTV 특집다큐멘터리 <서서평>으로 다시 태어난다.

선교사 서서평은 일제 치하, 상처와 가난, 병마로 시달렸던 조선에 들어와 조선인들도 멸시했던 고아와 과부, 나환자 등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그들에게 내주고 정작 자신은 과로와 영양실조로 생을 마친, 조선에 비친 예수의 빛 서서평.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다큐멘터리는 마지막 남은 시신까지 조선 땅을 위해 바쳤던 그녀의 불꽃같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기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되짚어본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간호, 구제, 교육, 사회선교 등 그 자체로 감동을 주는 그녀의 사역들은 물론 그녀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이 예수님을 만난 후, 진심 어린 공헌과 섬김으로 승화된 점을 집중해 조명할 계획이다.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후,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가난한 형편에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삶의 연속이었다.

다큐 제작진은 이러한 스토리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장면들은 재연 드라마로 제작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14명의 아이를 입양하는 등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이야기들을 선보인다. 촬영도 실제 그녀가 사역했던 전라도 광주, 제주도 현지에서 진행된다.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로 기획된 <서서평>은 내년 봄 극장 개봉과 여러 공동체의 상영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에 맞는 촬영, 음향, 편집 기술 등을 사용해 작품의 질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

연초 기획된 다큐멘터리는 10월 현재 그녀의 출생지인 독일 비스바덴, 간호사 교육을 받은 미국 뉴욕에서 해외 촬영을 마치고 국내 광주 및 제주 일대에서 재연 드라마 등의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한 달여의 후반 작업을 거친 뒤 오는 12월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 다큐멘터리 <서서평>을 통해 많은 분이 감동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서평 선교사 (엘리자베스 쉘핑, 1880~1934)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간호 교육을 마치고 32세에 간호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왔다. 독신의 몸이었던 그녀는 14명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해 길렀다. 나환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며 나환자의 자녀를 입양했다. 길을 가다가 나환자, 걸인을 만나면 집에 데려와 씻기고 자기 옷을 나눠 입혀 그녀는 평생 자기 옷 두 벌을 갖지 못했다. 늘 무명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를 입었고 발에 맞는 신발이 없어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1922년 현 한일장신대의 전신인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 이일학교를 세워 과부, 윤락 여성 등을 구제하고 교육했다. 간호사와 교육자로 평생을 헌신한 그녀는 54세에 과로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자신의 시신도 의학용으로 기증했다. 그녀의 장례는 교회장이 아닌 광주 최초의 사회장으로 진행됐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크리스천은 물론 불신자와 일본인까지 참석해 존경을 표했고, 수백 명의 나환자와 걸인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오열했다.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 QT>

2016 KWEB FEST

'베스트 브랜드 시리즈'상 수상

“<교회오빠의 연애 QT>, 기독교를 배경으로 연애라는 소재를 참신하게 재해석한 수준 높은 콘텐츠” ‘페이스북’, ‘네이버 TV캐스트’ 상영 중

CGNTV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 QT>가 아시아 최초 웹드라마 전문 영화제인 제2회 ‘2016 KWEB FEST(이하 K웹페스트)(주최 K웹페스트 조직위원회, COEX)’에서 ‘베스트 브랜드 시리즈’ 상을 수상했다. 공식 초청된 유일한 기독교 콘텐츠인 <교회오빠의 연애 QT>는 국내외에서 출품된 6편의 후보작들을 제치고 당당히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K웹페스트 조직위원회의 강영만 위원장은 “<교회오빠의 연애 QT>는 기독교를 배경으로 연애라는 소재를 참신하게 재해석했다”며 “수준 높은 콘텐츠였다”고 평했다. 또 “이 작품을 계기로 더 많은 양질의 기독교 웹 콘텐츠들이 양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K웹페스트는 국내외 100여 편의 작품들이 초청됐고, 미국과 호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등 해외 16개국의 웹페스트 조직위원장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또한 지난해 성공적인 출발에 힘입어 올해 5개의 참가국이 추가됐고, <교회오빠의 연애 QT>의 출연 배우인 임지규, 임성언을 비롯해 옥택연, 김정훈, 최윤영 등 국내 유명한 배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웹시리즈는 10분 내외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동영상 시리즈다.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맞춤형 콘텐츠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 제한 영역 없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미국, 프랑스 등에는 이 장르 전문 제작사도 있고, 국내에서도 드라마, 영화, 코미디, 음악, 광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제작되는 추세다. 현재 해외 26개 국가에서 웹페스트가 개최되고 있을 만큼 웹시리즈는 대

중화된 콘텐츠로 부상하며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GNTV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웹시리즈 <KNOCK>를 제작해 페이스북을 통해 짧지만 깊은 여운이 있는 영상들을 선보이고 있다. 크리스천은 물론 수많은 불특정 대중들에게 부담 없는 콘텐츠로 보다 빠르게, 좀 더 가까이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 QT>도 지난 6월 19일 총 6편으로 제작돼 ‘페이스북 KNOCK 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기독교 콘텐츠의 미개척 분야였던 드라마라는 장르에 물꼬를 텃고, 장르적 특성에 힘입어 많은 청년들에게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K웹페스트 수상으로 작품성도 인정받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작품을 본 시청자들은 KNOCK 페이지에 “재미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회라니 아쉽습니다. 또 새로운 작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감되고 재미있는 드라마가... 6부작이 아닌 16부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소감을 남기고 있다.

현재 <교회오빠의 연애 QT>는 ‘페이스북 KNOCK 페이지’와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볼 수 있다.

웹&모바일 시청자들의 마음을 두드린 화제의 영상을 만나봅니다!

**KNOCK
인포리를 부탁해**

조회수 72만회



Inside

제작진에게 듣는다!

#간단 줄거리

30대 초반의 젊은 총각 전도사가 충북 옥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목회를 해나가는 이야기

#제작의도

주인공은 마을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손과 발이 되어주며 때로는 빛까지 함께 갠 등 성도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누군가는 떠나고 싶어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빛도 이름도 없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젊은 목회자. 그를 통해 제작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 우리의 역할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실제로 만난 주인공

첫인상은 과묵한 이미지. 그러나 마주 앉은 지 채 30분도 되기 전에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수다쟁이가 되어 이야기를 풀어놓는 아주 순박하고 정 많은 청년이다.

Out

공감 댓글

- 교회도 안 다니고 성당도 안 다니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겠네요.
- 버스에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교역자라는 같은 길을 걸으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생각해봅니다. 귀한 도전을 주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청년이네요. 젊지만 존경받을만한 삶입니다.
- 은혜 많이 받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Inside

제작진에게 듣는다!

#간단 줄거리

이태원에 살고 있는 20대 초반의 미국인 '조셉' (최준섭)의 이야기

#제작의도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조셉은 미국에서부터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안고 먼 한국 땅에 와서, 낯선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좋아하는 노래 즉 찬양을 통해 온 마음 다해 기쁘게 복음을 전파한다. 제작진은 그의 모습을 통해 크리스천에게는 자신의 은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전이, 비기독교인에게는 복음의 기쁨이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실제로 만난 주인공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명랑한 흑인 청년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사에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이다.

Out

공감 댓글

- 노래 속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 꺼져가는 내 심령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듯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
-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간증도 하며 진짜 예배드리는 모습에 도전이 된다.
- 계속 보게 된다. 뜨거운 찬양이다. 멋지다.
- 주님의 나라를 위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모습에 많은 격려 받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 아버지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네요.



**KNOCK
이태원 준섭이**

조회수 181만회

※ KNOCK 영상은 KNOCK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gntv.knock)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미와 감동, ‘고향교회 패밀리’가 떴다

국내 농어촌교회들의 다양한 풍경, 훈훈한 사역들을 담았던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가 새 얼굴들과 함께 시즌2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이하 ‘고향교회 패밀리’)>로 돌아왔다. ‘시즌1’에는 없었던 ‘패밀리’, 2인 1조가 된 고정출연자들이 매회 우리네 고향교회로 안내할 예정. 과감한 변화의 주인공들은 바로 ‘어제의 용사’들이던 개그맨 이정규와 찬양사역자 박요한, 개그우먼 김선정과 가수 제이미 스톤즈다. 이들은 모두 ‘시즌1’ 출연자들로, 흘린 땀을 기준으로 선정됐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고향교회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이들이다. 이미 1, 2편을 녹화하고 새 시즌 적응을 마친 4인을 통해 <고향교회 패밀리>의 새로운 재미에 관해 들어봤다.

“고향교회를 만나는 값진 시간”

‘시즌1’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에서는 국내 지방 곳곳에 터를 잡은 많은 고향교회가 소개됐다. 모두 알아주는 이 없는 곳에서 오직 영혼구원의 한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는 곳이었다. <고향교회 패밀리>의 준비된 MC 4인은 벌써부터 그 만남에 거는 기대가 크다.

<고향교회> 최다수 출연자기도 한 개그맨 이정규는 “예수님께서 번두리,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길을 가장 열심히 따르고 계신 분들이 지방교회 목사님들 같다”며 “그런 분들을 뵙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그분들이 방송을 통해 용기를 얻어서 기쁘다”고 했다. 박요한 또한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값진 시간”이라고 했다.

제이미 스톤즈는 ‘시즌1’ 촬영 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른 감사한 기억이 있고, 김선정은 고향교회에서 받았던 따뜻한 사랑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호흡이요? 인공호흡 수준이지요”

이제 한 달에 한두 차례는 영락없이 1박 2일간 동고동락해야 하는 팀별 MC 커플은 서로 어떤 호흡을 보일까. 이정규



가수 제이미 스톤즈와 개그우먼 김선정

와 박요한은 이미 6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사역자와 스태프로 선교 단체 사역도 함께 했다. 이정규는 박요한에 대해 “형은 아주 장난꾸러기죠. 개그감이 뛰어난 형이에요”, 박요한 또한 이정규에 대해 “사랑하는 정규와의 호흡은 거의 인공호흡 수준이지요”라고 했다.

김선정과 제이미 스톤즈도 서로 “동료에 전우에 같은 것이 싹트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촬영장 오는 길도 늘 제이미가 운전해 한 차로 움직이고 있다.

김선정은 “제이미는 하루만 같이 있어도 어쩌면 이렇게 재밌을까, 인간적일까 싶어요. 제이미를 통해 재밌는 소스를 많이 얻고요. 다년간 라디오 DJ를 해왔던 친구라 말도 잘해서 편하고 좋습니다”라고 했다.

“제대로 된 기독교 예능?”

<고향교회 패밀리>는 소위 기독교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을 표방한다. 이를 위해 네 MC가 입을 모아 추구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자’다. 제이미는 “처음에는 기독교 방송이니 모범이 되도록 행동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제작진이 있는 그대로 하기를 강권했습니다. 제 모습 그대로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하고 제가 얼마나 허당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했다. 제이미는 울진 편에선 새벽 두시에 배를 타고, 함양에서는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CGNTV 안테나를 다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많았다.

김선정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며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그 안에서 진솔한 은혜도 나올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정규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교회와 잘 어우러져야 한다”며 “친해야 이야기가 잘 나오듯 그분들과 하나 돼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잘 보여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이미는 “촬영 중 맑은 물만 봐도 은혜가 된 적이 있다”며 “자연 그대로가 회복을 주듯 저희를 통해서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국내는 물론 선교지 어디에 계신 분들에게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방송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찬양사역자 박요한과 개그맨 이정규

2016 CGNTV 직원 아웃리치 우리가 아웃리치를 떠나는 이유

가만히 서있어도 땀이 흐르던 지난 여름. CGNTV 직원들은 올해도 국내외 곳곳으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국내 팀이 방문한 장수, 청양 지역은 무채색의 공간이 화사한 옷을 입기도 했고, 방치됐던 공간들도 깨끗해졌다. 선교지 현장에선 동료들과 온몸으로 부딪히며 더욱 사이가 돈독해졌다. 안테나의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땐 각자 자신의 삶의 주파수도 돌아봤다. 그리고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또다시 CGNTV의 존재와 사명을 생각했다.



1. <국내 고향섬김 장수팀>
2. 잠시 일터를 떠나 손수 고향교회 어르신들의 머리를 염색해 드리는 모습.

<국내 고향섬김 청양팀>
1. 농활은 온몸으로, 하나님은 온맘으로!



<캄보디아 팀>
5. 소망의 씨앗 캄보디아 아이들~ 카메라를 통해 비춰진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순수했다.
6. CGNTV 아웃리치 팀이 방문한 예수마음교회와 지교회 두 곳 모두 평일에는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 1·2차팀>
4. 직접 눈으로 본 구마모토의 지진 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재해 현장 복구와 이삿짐 옮기는 일을 돕고 있다.



먼 나라 좋은 친구

칠레 유미 선교사가 지난 봄 CGNTV를 찾았다. 직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칠레로 떠난 지 4년 만에 처음 고국 땅을 밟은 유 선교사는

CGNTV의 슬로건인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저는 한 영혼을 위해 참 멀리 떠난 자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젊은 시절부터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던 그녀는

그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나눴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낯선 땅 칠레를 밟게 된 것도 그 마음 때문이었다.

안전지대를 떠나...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는 일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꼬박 24시간 이상을 날아가야 하는 먼 나라 칠레. 이정관, 유미 선교사 부부는 지난 2012년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말씀만을 붙잡고 중남미의 낯선 땅 칠레로 떠났다.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거처도, 후원 교회도 없었다. 이정관 선교사는 지인을 통해 "칠레는 위험해서 밤이면 창문마다 철제 방범창을 달는다"라는 말도 들은 바 있었다. 하지만 그때도 이 선교사는 '그러니까 가야지'란 생각이 먼저 들었고 결국 그 땅으로 향했다.

두 선교사는 지금도 예배처소와 교회를 섬길 재정, 중보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역 이후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며 '안전지대와 안정감'은 오직 주님뿐인 것을 깨닫고 있다. 또한 안전지대라 믿었던 곳이 도리어 위험지대인 것도 알게 됐다.

- 1. 생명공동체 교회 예배
- 2. 이정관, 유미 선교사 부부
- 3. 교회 성도들과 함께
- 4. 현지인 부부 대상 결혼서약 갱신식



칠레인 가정들과

이 선교사와 유 선교사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IGLESIA COMUNIDAD VIDA(생명공동체) 교회'를 섬기고 있다. 교인들은 모두 칠레인들이다. 칠레 선교사들이 주로 구제나 의료, 교육 사역에 주력하는데 비해 그들은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가정 회복에 주력한다. 그들의 교회에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거나 중독, 부부 문제를 가진 가정이 많다. 두 선교사는 꾸준히 심방하고 말씀의 꼴을 먹이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 여정 가운데 철옹성 같던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이혼 위기에 놓였던 부부, 공황장애를 겪었던 형제들이 알게 모르게 회복되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유 선교사는 한국인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고 연 1~2회 학부모 교육도 진행한다. 그녀는 교육의 많은 부분이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

반가웠던 CGNTV

유미 선교사가 처음 CGNTV를 만난 것은 교회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기르고 있는 지금처럼 한창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다. 공과공부 교재만으로



는 아이들의 눈과 귀를 붙들기 어려워 보다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자료를 찾던 중 CGNTV를 만났다. CGNTV를 만난 것은 그녀에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다. 그녀는 CGNTV를 활용해 매주 즐겁게 수업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녀는 지금도 "CGNTV는 문화와 미디어 영역에서 가히 혁명처럼 다가왔다"고 CGNTV를 추억하고 있다.

그녀는 칠레 선교사로서, CGNTV의 중남미 위성신학교 사역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는 가톨릭이 쇠퇴하고 개신교가 부흥하는 움직임이 있다. 반면 목회자 교육이 열악해 말씀의 실력을 갖춘 목회자들도 부족한 실정이다. 열정에 비해 말씀이 약한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 이단도 많다. 유 선교사는 "CGNTV 위성신학교 사역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세워져 중남미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CGNTV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심한 후 말씀을 전했던 유미 선교사는 CGNTV에 바라는 점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육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입으신 것이지요. 저는 CGNTV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라고 전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뉴스

중보기도연합팀 일본 아웃리치

CGNTV 중보기도연합팀이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시미즈에 있는 사론 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총 9명이 참석한 연합팀은 최근 건축한 사론교회의 주변 환경을 정리했고 인근 주민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했다. 양로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팩을 붙여드리거나 함께 찬양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도 보냈다. 또한 연합팀은 아웃리치 전 일정 중에도 일본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역자를 위해 꾸준히 중보기도의 끈을 이어갔다.



콜투올(Call2all) 2016 선교전략회의 참가

콜투올(Call2all) 2016 선교전략회의가 지난 7월 초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콜투올은 150개국 14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세계 최대규모의 선교모임으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돼 선교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강연자로 참석한 CGNTV 함태경 본부장은 '미디어와 선교'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CGNTV의 사역을 소개하고 차세대 맞춤형 콘텐츠 전략을 소개했다.



SNS 맞춤형 30초 공감 영상 <삼.공.시리즈>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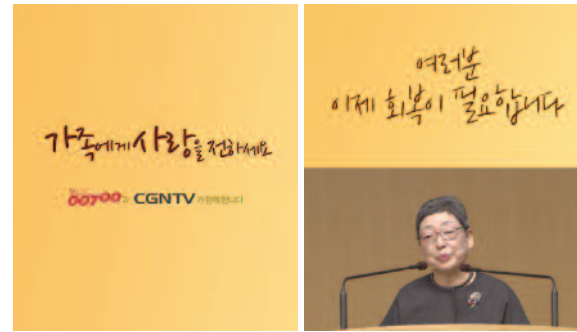
TV에서 모바일로, 긴 동영상에서 짧은 동영상으로 현대인들의 시청 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CGNTV에서는 올해 5월부터 모바일에 최적화된 짧은 동영상 <삼.공.시리즈>를 제작,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시리즈는 크리스천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에피소드를 30초 길이로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삼.공.'은 CGNTV의 핵심가치 공유, 공감, 공생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현재까지 총 6편을 제작, 조회수 40만을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크리스천 SNS 동영상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로 제작될 예정이다.

<시청방법> 페이스북 : CGNTV Korea 페이지에서 '동영상' 클릭
유튜브 : CGNTV Korea 채널에서 '삼.공.시리즈' 클릭



CGNTV X SK 00700과 함께 공동 캠페인

CGNTV와 SK 00700이 2016년 9월부터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세요'라는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CGNTV에서 지난 2월 제작한 SNS 동영상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 말해요'가 자녀를 향한 사랑 표현이 적었던 부모님들이 말로 사랑을 표현할 때 자녀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메시지로 대중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에 SK 00700의 공동 광고 제안을 받아 현재 SK 00700 고객 대상 LMS 문자 광고 및 유튜브, 페이스북 내 홍보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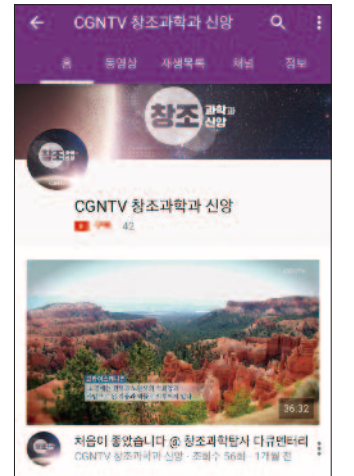
운영위, 온누리교회 비전캠퍼스 방문

CGNTV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상건 장로)가 CGNTV 후원 및 지역 협력을 위해 온누리교회 6개 지역 비전캠퍼스를 순회했다. 6월 12일(주일) 강동 캠퍼스를 시작으로 남양주, 수원, 인천, 대전, 부천 캠퍼스를 연이어 방문했다. 운영위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CGNTV 현 사역을 소개했고, 4중주 연주를 준비해 예배 중 특별 순서도 선보였다. 각 캠퍼스 성도들은 CGNTV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예배시간마다 CGNTV를 위해 중보기도를 했고, 69명의 신규 후원자 및 26명의 증액 후원자가 새롭게 후원을 약속했다.



'CGNTV 창조과학과 신앙' 유튜브 채널 오픈

CGNTV에서 창조신앙에 관련된 영상을 한곳에서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CGNTV 창조과학과 신앙'을 오픈했다. 이는 진화론의 거센 물결에 잃어버린 창조신앙을 각 가정과 다음 세대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CGNTV에서 방송된 <창조신앙교육 컨퍼런스>, <창조과학자 시리즈>, <창조과학탐사 다큐 '처음이 좋았습니다'> 등 다양한 세미나, 문화 프로그램 등이 소개된다. 시청 방법은 유튜브(YouTube) 앱을 설치한 후, 'CGNTV 창조과학과 신앙' 채널을 검색하면 된다.



해외뉴스

미주 CGNTV _ 특별대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 방송

미주 CGNTV는 개국 11주년을 맞아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를 주제로 특별대담을 방송했다. 총 2부로 진행된 대담은 1부에서 선교적 교회와 시대의 요청에 대한 교회의 바른 대응을, 2부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미국 내 젊은 한인 목회자들을 소개했다. 권혁빈 목사(앨버틴 온누리교회)가 진행을 맡고 김신일 목사(선교학박사, 유니온교회 담임)와 이상훈 교수(풀러신학교 선교학),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와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가 각각 1, 2부의 대담자로 출연했다.



일본 CGNTV _ 특집 다큐 <땅끝까지 이르러>

일본 CGNTV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9일(주일) 특집 다큐멘터리 <땅끝까지 이르러>를 선보인다. 일본 처치오브갓 교단 제1호 선교사인 아베카즈코 선교사의 사역 일대기를 조명한 작품. 그녀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열정적이었던 일본 선교의 뿌리를 되짚어볼 계획이다. 여성교사 아베 카즈코는 1981년 28세 나이로 멕시코에 파송돼 홀로 35년 동안 멕시코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다. 크리스천 학교를 세워 멕시코를 위한 리더십을 세우고 목사로 다양한 복음전도활동을 펼쳤다.



대만 CGNTV _ 청년선교대회와 협력 사역

대만 CGNTV가 지난 7월 11일부터 16일 대만에서 열린 '제13회 청년 선교대회'에 참석해 다양한 사역을 펼쳤다. '청년 선교대회'는 중화권 청년들의 선교적 비전을 고취하기 위해 3년마다 열리는 대형 선교집회다. 대만 CGNTV는 중화권 청년 1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대회 측(학원전도회, CEF)과 협력, 소그룹 강의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현장 뉴스를 제작, 청년 복음화 운동에 동참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30여 명의 CGNTV 청년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분야별로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현재 자원봉사자 중 제작 부문에 3명을 교육 중이며 이들은 교육 후 실제 제작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태국 CGNTV _ 태국 침례교단과 <Church at Home> 공동 제작

태국 CGNTV가 C.C.T 교단과 두 번째 협력 프로젝트인 <Church at Home>을 공동 제작한다. <Church at Home>은 제목 그대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TV로 드리는 예배다. C.C.T 교단이 제작비 전액을 부담하고, 제작 후 태국 공중파 NBT(채널11)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50분간 방송될 계획. 태국 CGNTV는 방송 후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Church at Home>은 태국 내 많은 무목 교회와 가정교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랍 CGNTV _ 난민 다큐 2탄 제작

2015년 다큐멘터리 <유럽 난민 하이웨이>를 제작한 아랍 CGNTV가 지난 여름 본격적으로 그 후속작 촬영에 돌입했다. <유럽 난민 하이웨이>가 난민들의 유럽 내 이동 경로를 동행 취재했다면 이번 2탄은 주요 나라들의 난민정책 및 난민 현황들을 담을 예정이다. 첫 촬영은 미국 포틀랜드 빌리지 침례교회와 협력해 미국 내 난민 정착상황을 취재했다. 제작진은 포틀랜드 교회 예배에 참석해 난민 취재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랍 CGNTV는 성경적인 다문화교회 다큐멘터리도 제작 중으로 난민 취재와 함께 미국 내 성경적 교회 모습을 갖춘 다문화교회들도 방문했다.



인도네시아 CGNTV _ 인도네시아 개국 2주년

인도네시아 CGNTV가 개국 2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0일(토) 오후 4시 30분 자카르타 중앙교회에서 감사예배 및 기념행사를 가졌다. 총 250여 명의 한인 및 현지인교회 리더십이 참석해 개국 2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예배 중 말씀을 전한 'MY HOME' 대표 다니엘 뱌지 목사는 "한국 신앙의 열정을 기억한다"며 "그 열정이 인도네시아의 부흥으로 이어지도록 CGNTV가 그 중심 역할을 잘 맡아달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인 골린땅 연주, 태권도 시범, 워십댄스 등 양 국민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새로운 자문위원으로 한국선교사협의회 회장 김중석 선교사가 위촉됐다.



CGNTV
프로그램
편성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순종(영어자막) 05: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11:10 미니콘서트 섬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7: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믿음(영어자막) 08:5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0:20 [말씀]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07:0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08:50 [말씀] 라준석 목사 (시드니새순교회) 10:2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7:0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07:4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10: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하용조 목사의 믿음(영어자막) 07: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07:4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5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07:0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십계명(영어자막) 08:5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09:30 CGN 비전특강 10: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거룩한 바보들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6:00 생명의 삶 07:0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09: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10: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1:30 선교한국 2016 <그런즉 우리도> 세미나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6:00 영어예배 16:50 나침반 바이블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2: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1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13: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4:50 [말씀] 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켄센 프랭클린의 부흥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거룩한 바보들	12:30 [말씀]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13:10 [말씀]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4:50 [말씀] 권혁민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목회자 컨퍼런스: 죄와 은혜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12: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3:1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4:1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2: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13:1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50 거룩한 바보들 14:5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미션 로드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12:3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뉴욕IN2) 13: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칩 잉그램의 참된 평안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50 새벽나라 18:00 미션 로드	12:3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3:1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3:5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5:50 토마스 선교사 순교 150주년 기념 <한국 기독교 부흥의 뿌리를 찾아서> 16:4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7:2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8:2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23:00 나침반 바이블 23:30 일본 야마토 갈보리 채플예배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3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20:10 주해홍 교수의 통큰통독 21:0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2:4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23:2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23:50 매트 찬들러의 아담과 하와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9:3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20:10 선교한국 2016 <그런즉 우리도> 세미나 21:00 하용조 목사의 순종(영어자막)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2:40 거룩한 바보들 23: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23:50 크레이그 그로웰의 성경 바로알기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20:10 CGN 북세미나 책걸음 21: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22: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23:2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23:50 데이비드 플렉의 래디컬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19:30 [말씀] 라준석 목사 (시드니새순교회) 20:10 토마스 선교사 순교 150주년 기념 <한국 기독교 부흥의 뿌리를 찾아서> 21:00 [말씀] 권혁민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23:2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9: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10 2016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 주제강의 21: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22: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3:2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23:50 맥스 루케이도의 100인의 행복 00:20 생명의 삶	18:20 하용조 목사의 느헤미야강해 (영어자막) 19:00 2016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 주제강의 20:0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20: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1:2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23:0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3:50 켄센 프랭클린의 부흥 00:20 생명의 삶

후원안내 CGNTV는 오직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은 힘있는 복음 방송의 밑거름이 돼
선교지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 후원신청방법

1. 전화신청 02-796-2243
2. 인터넷 신청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3. 모바일 신청 m.cgntv.net **상단 후원하기 클릭**

* 후원방식

1. 정기후원신청
 - 통장자동이체 •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신청
 - 계좌이체 or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ARS 후원 060-700-1660 (한통화 5천원)

* 후원계좌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농협 301-0072-3639-01

* 해외지사 후원

- KEB하나은행 573-910007-48104
-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CGNTV 실행위원회 배중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은섭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고현준,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권익현, 김관근, 김관석, 김득환, 김명세,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성균,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신원, 김영길, 김오성, 김용성, 김원균, 김 인, 김인겸,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나영욱,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성호, 박영한, 박은영, 박이철, 박지수,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준희, 선우석, 성필호, 손태용, 손한기, 송영태, 신수은,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유병진, 유영섭, 유의준, 유이상, 유주희, 윤덕순, 윤석우, 윤원식, 윤진혁,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길수, 이남식, 이동엽, 이밝음, 이병하, 이서정, 이석일, 이영희, 이용경,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일형, 이창환, 이춘희, 이학일, 이호영, 이희연,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순애, 장정심, 정용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조옥형, 지성한,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유강, 최정수, 최훈학, 하성기, 하주현,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홍혜실, 황광석, 황상운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3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 ▶ **CS 글로벌** ch.70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D'LIVE** ch.703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S 글로벌**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 ▶ **olleh G**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tv** ch.554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캔디팟캐스트)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인터넷 서비스

-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

SNS

- 페이스북을 통해 CGNTV의 최근 소식과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gntv

※ 기타시청문의 02-796-9800

CGNTV 사명의 진화

이용경 장로 (CGNTV 운영위원)

CGNTV의 사명은 한마디로 코이노니아의 사명이다. 교제와 나눔은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나눔은 물론, 믿음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행 2:46) 서로 나누고 연결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10년 전, 땅끝 오지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단절된 채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연결해 주고 세계 어디에 있던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 시작한 CGNTV. 인터넷 보급이 제한적이었던 당시에는 위성방송만이 이러한 꿈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었고 CGNTV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을 강타한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느새 한국의 차세대를 흔들고 있고 2천년 전의 예수님 모습을 잊어버리고 복음의 기본 가치를 소홀히 한 한국 기독교계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변방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변방을 품고 사역에 몰두해 온 우리 자신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마 19:30)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CGNTV의 사역현장은 다시 오지를 넘어 도심으로, 변방을 넘어 안방으로, 과테말라와 세네갈을 넘어 실리콘밸리를, 프랑크푸르트를, 여의도를 함께 품어야 하게끔 되었다.

“먼저 된 자들”을 병들게 하는 누룩을 찾아내 청소하고 사들여 가는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를 깨우치고 재생시키는 사명이 시급해진 것이다.

환경이 바뀌면 사명도 따라 변해야 한다. 진정 온누리를 향하는 새로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매체로 CGNTV의 앞날이 더욱 바빠질 것이다.

